

##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포럼 결과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포럼이 OECD 회원국 및 중, 러, 사우디, 태국, 브라질, 남아공 등 14개 여타 공여국, 국제기구(UNDP, WB, IMF)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2.1-2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주요 내용

- OECD와 신흥공여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기로 합의
- OECD 비회원국의 ODA 통계를 DAC에 자발적으로 제공기로 합의
- 원조효과 증진을 위해 수원국내에서 공여국간 조정 및 원조정책, 원조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공유 합의
- 브라질은 ODA의 증대가 어려움을 감안,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무기판매세, IMF의 특별인출권, 국제금융제도(IFF), 이민자 송금, 신용카드세 등에 대한 검토를 제의하고, 브라질, 칠레, 프랑스, 스페인의 공동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이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대함.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16개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 채택

### 2. 포럼 개요

- 금번 포럼에는 OECD 회원국 및 중국,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라질, 칠레, 인도, 남아공, 이스라엘, 리비아, 튀니지 등 14개 신흥공여국의 원조정책 담당 고위관리, UNDP, WB,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함
  - DAC 회원국과 여타 공여국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회의는 1997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이래 8년 만에 개최

- 금번 포럼은 DAC와 UNDP 공동주관하에 개최되고, DAC 의장 및 UNDP 총재보(개발정책국장 겸임)가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함
- 영국, 일본 정부가 포럼 개최를 위한 재정을 지원함

### 3. 천년개발목표(MDG)의 도전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금년도 G8 정상회의 및 MDG 중간점검을 위한 UN 정상회의 개최 예정 등 개발을 위해 중요한 한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MDG 달성을 위해 DAC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4. 경험공유 및 공조방안

- 참석자들은 DAC을 통해 지난 45년간 축적해 온 개발원조정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공유 필요성, 수원국내에서 다수 공여국간의 공조협력의 필요성, 남남협력 및 3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흥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정책 및 원조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브라질은 빈곤감소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DA 외에도 매년 추가로 500억불의 자금이 필요하며,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칠레, 스페인, 프랑스와 공동으로 UN 사무총장의 지지를 받아 뉴욕에서 50여개국의 고위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주도하였고, 지금까지 111개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하였음
  -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으로 금융거래세, 무기판매세, IMF의 특별인출권, 국제금융제도(IFF), 이민자 송금, 신용카드세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미국 정부가 동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합의가 가능한 사항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자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못하였음

### 5.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OECD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정보교류 및 통계공유, MDG 달성을 위해 북-남-남의 3각 협력의 적극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이번과 같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음
  - 또한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에 관한 peer review시 신흥공여국들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관련,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국가에서는 내각차원의 합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등 여타 OECD 회원국에서는 정책일관성문제를 전정부적으로 추진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우리 대표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데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한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강력한 정부가 ownership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잘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우리나라의 원조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수원국의 ownership을 존중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6. 관찰 및 평가

- 최근 신흥공여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원국내에서 원조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OECD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조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번 포럼이 개최된 바, 신흥공여국들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들은 신흥공여국들의 원조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정보 및 통계 확보 체제를 수립하고, 앞으로 신흥공여국들이 그간 DAC에서 제정된 원조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는 앞으로 신흥공여국들의 자발적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임